

모델교회 (사도행전 13:1-3)

오늘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날이다. 2002년에 시작해서 20년이 되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응답을 누렸다. 많은 부분에서 증인이 된 교회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내용을 가졌다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증인되고 했다.

이렇게 증인되어서 미국, 남미라는 단어를 잡았다. 여기에는 또 지난 20년간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했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교회를 책임진 담임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시대적인 237, 치유, 서밋을 위해 부름 받은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가 237 하는 중에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이런 단어를 잡고 있다. 의미있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증거를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참 복음 운동의 시대적이고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은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 밖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언약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올인해야 할 이유이다. 여기에 오직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주 쉽다. 이렇게 살면 되는게 인생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이다.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응답을 받았다. 놀랍다. 인간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실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은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힘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내용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다. 생일도 특별하고 결혼기념일도 특별하다. 자기가 생각했던 중요한 학교를 졸업한 날도 특별하다. 똑같은 하루지만 매년 마지막날을 우리는 의미있게 보낸다. 그 때는 누구든 생각이 깊어진다. 다음해를 두고 새로운 각오도 하고 계획도 짚는다. 이 때 우리가 새로운 말씀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 날이다. 지나간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자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언약으로 잡는 날이다. 이미 내용은 정해져있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단어는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옛날부터 있었다. 오늘 다시 한번 잡는 것이다. 이 은혜가 전부터 살아있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1. 모델교회

이 시대는 참 복음운동을 해야 할 모델교회가 필요한 시대이다. 복음과 성경적 전도에 대하여 언약을 가진 모델교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표본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오늘 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잡아야 할 언약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무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 교회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전략에 대해서 이것이 제 2의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복음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이것을 할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게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러면 그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써 놨다. 성경적 전도 전략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특별히 이번 20주년을 맞이하여 류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다. 오늘 제목을 잡은 단어도 그 때 나온 단어이다.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아무도 사도행전 1, 3, 8을 하

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로, 메시지를 들어온것과 비교해서 보통 아니네 이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과 같은 교회가 되라. 왜 이때까지 잘 못했는가? 왜 교회가 변질되는가? 그 기준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복음을 잘 몰랐다.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그것 못하고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섞은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근본 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죽을수 없다. 세상에서 영향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왜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가? 사단에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떠나서 그렇고 떠난 이유는 몰라서 그렇다. 어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떠나고 싶겠는가? 몰라서. 그거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1, 3, 8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오직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는 것이다. 그것을 24하라. 그런 교회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메시지 안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것은 영적인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수 있는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약속이 그리스도이다. 이 힘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힘을 매일 받아야 한다.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때에만 가능하다. 스가랴 4:6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다. 바벨론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것이다.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육신적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된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육신적인 것도 다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남미라는 단어를 두고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미국과 남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과 성경적 전도이다. 이 부분에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고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교회사에 이런 복음 받은 적이 없다. 성경적 전도전략을 이렇게 설명한 교회도 없다. 우린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콘텐츠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교회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잘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이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를 또한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시대적인 안디옥교회. 오늘 본문은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난 모델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금식하며 복음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가 결정하면 이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있는 교회. 그 제자들의 구성이 다민족인 교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교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 교회. 그 다음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중요한 인물을 파송했던 교회. 참으로 복음과 전도에서 모델적인 교회였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안그러면 의미 없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이것 안하면 하나님 눈에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번에 쿠바에서 만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보통교회가 아니었다. 금식기도도 하는 교회였다. 놀랍다. 남미에서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교회의 문제가 있으면 팀을 짜서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교회였다. 니카라과 캠프에서 온두라스에서 연결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 이 분이 우리 복음을 만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한다. 너무나 같듯이 되어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참 놀랍다고 느꼈다. 남미에서. 내 성경공부 절대 안 빠진다. 여하튼 무엇이든 잡으려고 한다. 이번에 우리

가 갔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교회였다. 철야기도도 한다. 달을 정해서 가정들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철야기도 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는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니 암도 낮고 백혈병도 나았다는 것이다. 피아노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13살 짜리가 손가락 마디에 곰팡이가 붙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나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몇몇 렘넌트는 소천했다고 한다. 환경이 아주 어려운 곳이었다. 과연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 그리고 변기에 속뚜껑이 없었다. 그리고 목사님 집에 거주했는데, 교회 사택이었다. 거기에도 없었다. 속뚜껑 빼고 앉으면 덜컹 하는 느낌이 난다. 그런데 몇 번 하니 그게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 공항에도 없었다. 이런 곳에 무슨 약이 있겠는가? 이런 환경에 사는데, 병원이 있으면 병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이다. 교회가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기간도 만들었다. 초창기 한국 교회와 비슷했다.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많은게 마차택시였다. 말이 끌고 사람들이 마주보고 앉는 것이다. 도시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도 이것이 많이 다닌다. 차보다 숫자가 더 많다. 그런데 교회는 매일 모이는 것 같다. 느낌에는. 어려운 중에도 교회는 확장되고 있다. 인플레이는 얼마나 심한지, 음식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을 먼저 보내라 해서 천오백불 먼저 보냈는데, 그게 몇 개월 전이다. 그런데 소고기 값이 10배가 올랐다고 한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누구나 사먹는데, 그 나라는 정부 관리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못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백명 이상의 사람에게 두 번인가 세 번을 줬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고 한다. 요구르트도 그렇다. 우리는 있어도 안 먹는데, 아무나 못 먹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두 번인가 먹었더니 이번에 집회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교회였다. 환경은 너무 힘들다. 목사님 맞은편 집을 봤는데, 한 집에 어떤 집에는 불이 없고 어떤 집은 불이 하나 있다. 이런 교회인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다. 교회 확장하고, 돈 생기면 할까 하고, 지금 짓고 있는데 돈 생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명년에 다시 집회해달라는 것이다. 목사님에게 물어봤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첫날 메시지 듣는데 나는 다른 것을 이야기 한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나는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했다고 깨달았다고 한다. 내가 참 하나님 은혜다. 포인트를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다. 기도가 나쁜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더 많이 말한 것이다. 내가 속 마음에 목사님 축복 받겠다 싶었다. 답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게 최고고 그걸 24누리면 일등인 것이다. 백명 이상은 늘 참석했을 것 같다. 그런데 한 50-60명이 목사님이었다. 미국은 그들에 비하면 육신적인 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영적으로는 미국이 더 지옥이 아닐까 싶었다. 교묘하게 하는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진실하게 그리스도 울고 끝내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잡으려고 모였다. 그리스도.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면 말 다한 것이다. 여기서 끝을 안내고 바로 그 옆에서 기도로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24시 기도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다. 그리스도 없을때에는 기도 심하게 하면 귀신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 만큼은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류목사님이 보통 이런 부탁하면 영상으로 끝을 낸다. 영상인사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탁드리니 나도 기도로 동참하시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다고는 그 말 아닌가? 그래서 말 씬드린것처럼 내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끝나면 안된

다. 그 안에서 나는 무엇해야 할 것인가가 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24시 기도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듣는 말이다. 낮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두고 기도하고, 사건이 그래 자주 일어나나? 스케줄이 하루 내도록 기도할 스케줄이 있는가?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 기도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237, 치유, 서밋, 이 깊은 언약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치유 일어나고 심령 골수 쪼개는 역사 일어난다.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 응답이 온다고 하였다. 체형이고 간중이다. 이 언약과 기도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이것이 24되는 교회가 되라. 이런 모델교회가 되어서 LA를 살리고 미국과 남미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100팀 100지교회, 이것이 언약이고 기도이다. 이렇게 해서 천만제자를 세우고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후대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 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이 일이 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대부분 듣고 지나간다. 잡아야 하고 거기에 멈춰서야 한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원인은 뱀이다. 내가 아니고 뱀이다. 내 죄가 아니고 뱀이다.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죄는 나타난 결과이고 원인은 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서 뱀을 죽이겠다고 한 것이다 죄에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아담을 죽이겠다고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은 살리고 뱀은 박살 내는 것이다. 원인이 뱀이니까. 우리는 이 시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안그러면 나는 다른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생각 바뀌어야 한다. 아주 점찬게 예수 믿으면 안 바뀐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냐는 것이다. 분명 니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유일한 답이다. 어떻게 문제에서 해방되려고 하는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방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으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문이 열리고 노력없이 응답이 오는 것이다. 노력없이. 별 기도 없이 응답을 계속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테니 너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리라는 것이다. 대신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필요하다. 니가 죽으려고 대드는 것은 필요없다. 내가 백번 십자가에 죽어도 그것은 광이다. 나는 니가 증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죽을테니, 니가 죽을 이유 없다. 다시 한번 언약 되어야 한다. 증인 되어야 한다. 이 복음 전해야 한다. 그거 안하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누림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된다. 당연히 그 기도의 내용은 근본이 항상 그리스도에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또 사단이 무너진다. 더 무너질 것이다. 문이 더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큰 인생, 시대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고 계속하고 24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237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오늘 20주년 의미있는 날을 맞아서 이 언약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날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기 바란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24되고, 237 되기 바란다.